

시민 참여로 전주역 앞 마중길 명품변신

시민들 기부 참여 줄이어... 개인·기업·단체 등 모두 60곳 총 1억3600만원 모금

전주시가 전주역 앞 대로에 '전주 첫 마중길'을 조성하는 가운데 명품가로 숲 조성을 위한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첫 마중길에 위치한 역전침의원 서일환 대표와 공뿌리공나물국밥 배성욱 대표, 연화추모공원 강성구 대표는 이날 각각 200만원의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현수운동 성금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들은 본인의 상가 앞에 상가틈의 나무를 식재하고, 쭉쭉 자라는 나무처럼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희망나무 현수운동에 참여했다.

시민들의 현수운동 참여도 이어졌다. 이정택 (쭉쭉건설 대표)와 1952년부터 이어져온 전주 토박이들의 모임인 전주향학회, 김순임 중화선동 정든집김여사네 대표는 이날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앞이 차량중심의 도로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면서 각각 200만원의 성금을 후원했다.

전주시 지역 주민자치 자생단체들도 이날 시민희망나무 현수운동 성금 기탁을 통해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한 첫 마중길 조성에 힘을 보탰다.

중화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지은숙)는 이날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금암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마을가꾸기협의회도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병훈)도 지난날 8일 열린 동민의 날 행사에서 500만원의 현수 성금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을 위한 시민희망나무 현수운동에는 지난 5월 1호 참



주한 대사 가족 초청 김장 체험

지난 25일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교 대강당에서 주한 대사와 가족 초청 김장 체험 및 콘테스트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 시장과 이스크르 배쉬모프 주한키르기스대사도 한국 고유 음식인 김치를 만들고 있다.

여기업을 시작으로 기업과 단체,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후원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은 모두 60곳으로, 총 1억 3600만원이 모금됐다.

시는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기존 차량우주의 도로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걷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존 편도 4차선 차로를 8차선으로 줄이고 중앙에 폭 15~20m의 광장에 느티나무 250그루

를 심어 사람이 물리는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현수로 식재되는 느티나무를 250여 그루 중 60주 정도를 교통상에 우선 식재한 상태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식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첫 마중길 광장에 조성되는 명품숲은 출생·입학·결혼·취업 등을 기념하는 가족기념식수와 기관 단체, 기업들의 뜻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현수운동을 통해 도

시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심고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6기 전주시의 최대 중점사업인 첫 마중길 조성되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KTX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풍남문 종각 보수공사 추진

뒤틀림 현상 보수 5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확보 내년 상반기 진행

전주시가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풍남문 종각을 보수한다.

전주시는 완산구 전동에 위치한 풍남문(南門·보물 제308호) 서편 종각의 뒤틀림 현상을 보수하기 위한 5000만원의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함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풍남문은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소재지였던 전주를 둘러싼 성곽의 동서남

북 4곳의 출입문 중 유일하게 남은 남쪽 출입문으로, 지난 4월 초에 풍남문 서편종각의 기둥 뒤틀림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무게가 2톤에 달하는 '완산종'이 30년간 매달려 있고, 해마다 제야 타종식 등을 치르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시는 종각의 주기동 뒤틀림 현상에 대해 제어행사 전에 고치도록 문화재

보수비를 신청했으나, 최근 지진 사태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된 경주지역에 문화재 보수비가 집중 지원되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가 최근 긴급보수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전문가 자문 및 보수 설계용역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종각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풍남문 종각보수가 원활히 추진되면 내년 광복절에는 풍남문에서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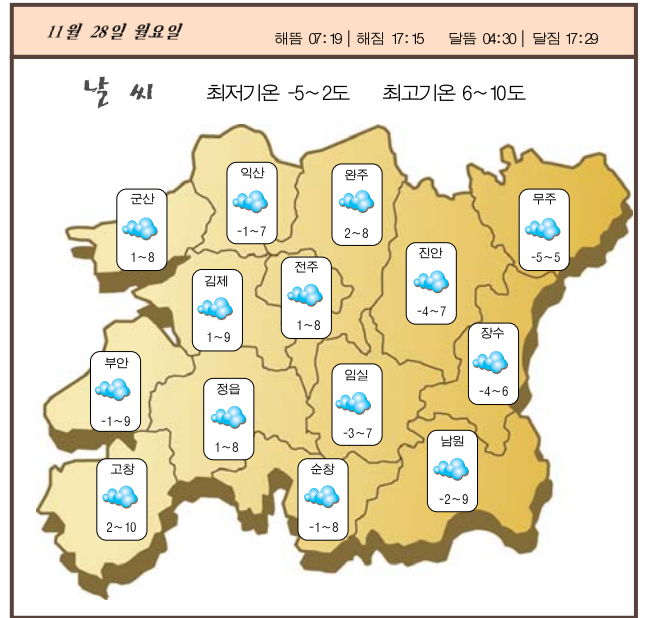
리는 종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이번 문화재 보수공사를 통해 문화재 원형복원 및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에 자리한 풍남문을 옛 전주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풍남문은 성문 위에 전후 2열로 4개씩 세운 누각의 1층 기둥이 2층의 변주로 연결되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국가 지정 보물로 지정됐다.

완산종은 지난 1977년 시민의 성금으로 제작돼 1980년부터 풍남문 종각에 매달려 있다.

/김영재 기자



원광대 전기공학과 신준혁 학생 잡영챌린지 경연 전북도지사상

한국전기안전공사 입사 영예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4학년 신준혁 학생이 청년인재 채용 오디션인 잡영챌린지(Job Young Challenge) 경연에서 대상인 전북도지사상을 받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입사의 영예를 안았다. <본보 11월 24일자 6면>



최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잡영챌린지는 전라북도와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역 고용혁신추진단이 주최하고,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3차례의 예심을 거쳐 29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청년인재들의 셀프마케팅 경연을 벌였다.

원광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원광대학교병원에 지원한 신준혁(전기공학), 조성수(전기공학), 김정혜(전자공학), 조우남(경영4), 홍현지(국제통상) 등 5명의 학생이 뛰어난 경연을 펼쳐 호평을 받았으며, 신준혁 학생의 대상 수상과 더불어 조우남 학생이 원광대학교병원 채용예정자로 선발되는 성적을 거두었다.

신준혁 학생은 "교내 대학창조 일자리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본선에 진출한 우리 대학 5명의 지원자가 모두 뛰어난 재량을 보

여줄 수 있었다"며 "다른 선후배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광대 인력개발처장 박은숙 교수는 "원광대 학생들이 큰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 꾸준히 뛰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